



▲2025학년도 신입입생 입학식 사진, 대외협력홍보실 제공

2025학년도 신·편입생 입학식 개최, 우리 대학의 새 가족을 환영하며

지난 4일, 학생회관 3층 수퍼스타홀에서 신·편입생 입학식이 열렸다. 입학식은 △총장 인사 △총동문회장 축사 △신입생 선서 △교가 제창 순서로 진행됐다. 참여 대상은 10개 단과 대학과 자유전공학부, 대학 본부 직속 반려동물산업학과의 신·편입생으로, 수퍼스타홀 수용 인원을 고려해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박진배 총장은 식을 열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뿌듯하다”라며 소감을 전했고,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 환경과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신입생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이어 제52대 ‘걸’ 최의지 총학생회장은 신입생을 향해 “여러분은 학생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이자 전주대학교의 변화를 이끌 주역입니다”라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총학생회가 합

께하겠습니다”라고 전하며 학교생활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제40대 ‘NOW’ 한승민 중앙 동아리연합회장(이하 중동연 회장) 또한 “중동연은 중앙동아리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중앙동아리를 홍보하며, 신·편입생의 입학에 축하했다.

이후 신입생 선서와 박진배 총장의 새 출발 선언으로 총 2,753명의 입학이 마무리됐다. 새 가족이 된 신·편입생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대학에서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쳐 나가길 기원한다.

| 오유진 기자(yujin03120@jj.ac.kr)

“희망을 주는 공동체” 2025년 1학기 개강과 함께한 교직원 예배

지난 3월 12일(수) 오전 11시 본교 대학교회에서 2025년도 1학기 개강을 맞아 교직원 예배가 진행됐다. 이날 예배에는 우리 대학 교직원들과 함께 완산교회 유병근 담임 목사, 홀리클럽 사무총장 전봉권 장로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먼저 전주산성교회 담임 백승연 목사가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열었다. 이후 도내 기관과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홀리클럽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전봉권 장로의 대표 기도가 이어졌다.

“다시 희망을 주는 교회”를 주제로 설교한 유병근 목사(전주완산교회 담임)는 사도행전 2장 43~47절 말씀을 바탕으로 나눔과 사랑으로 이웃에 희망을 전했던 교회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유 목사는 “바쁜 삶 가운데에 있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이웃과 학교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며 삶의 나눔과 희망의 전파를 강조했으며, 축도로 설교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2025년 첫 교직원 예배를 기념하여 박진배 총장이 단상에 올라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렸다. “1학기에 진행될 채플과 기독교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위해 힘써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석한 모든 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라며 예배에 함께한 대학 구성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나누는 설교 말씀처럼 캠퍼스와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로 예배를 마무리했다.

| 김주은 기자(202315018@jj.ac.kr)



▲개강예배 사진, 대외협력홍보실 제공

2024학년도 학위수여식 개최

지난 2월 19일 JJ아트홀에서 2024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올해로 제58회를 맞이한 학위수여식에는 차종순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이사장, 이성운 국회의원, 임정엽 총동문회장, 서화평 전주대학교발전목회자협의회회장 및 교무위원을 비롯해 졸업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885명, 석사 100명, 박사 41명 총 2,026명이 학위를 받았다. 박진배 총장은 축사를 통해 “졸업은 끝이 아니라 더 큰 꿈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다”라며, “이제야 비로소 인생의 항해를 위한 돛을 펼친 졸업생들이 그동안 전주대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멋지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졸업생을 격려했다.

전주대 동문인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후배들을 향해 졸업 후 우물 안 개구리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마부위침이라는 사자성어처럼, 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진심 어린 축사를 전했다.

시상식에서는 박사과정 장성구(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이기선(탄소융합공학과), 학사과정 조철기(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학생이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우수한 학업 성취와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학생들에게 총장상, 공로상, 총동문회장상, 전주대학교발전목회자협의회회장상을 수여했다.

전주대는 지금까지 학사 8만 3,925명, 석사 7,409명, 박사 1,119명, 명예박사 43명 등 총 9만 2,496명의 졸업생을 배출해왔다. 대학에서 배운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9만 2천여 명의 졸업생에 이어, 올해 졸업하는 2,026명의 슈퍼스타에게 응원의 박수가 전해지며 학위수여식이 마무리됐다. 졸업생들이 전주대에서 배운 가치와 열정을 바탕으로, 이제 더 넓은 세상에서 힘차게 도약하길 응원한다.

| 양예은 기자(kikiyye@jj.ac.kr)



▲ 학위수여식 사진, 대외협력홍보실 제공

'전주대 생존게임' 신입생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개최

지난 4일과 5일, 학생회관 앞 로터리 일대에서 신입생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전주대 생존게임'이 진행됐다.

오징어 게임을 테마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또래 활동 부스, 진로·전공 탐색 부스, 대학 생활 부스, 학과 탐색 부스로 구성되어 신입생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또래 활동 부스에서는 총학생회 운영본부가 '최후의 1인을 찾습니다'를 주제로 딱지치기, 제기차기, 공기놀이 등 친숙한 게임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흥미를 끌었다. 또한 '입학 네 컷: 총장님과 Chill'이라는 포토 부스를 운영해 박진배 총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특별한 기회가 제공됐다. 이외에도, 중앙동아리연합회와 34개의 중앙동아리가 부스를 운영하며 동아리를 홍보하여 신입생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진로·전공탐색 부스에서는 교육과정평가센터, 융합교육지원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학군단이 참여해 신입생들에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진로 방향을 안내했다.

대학 생활 부스에서는 카운슬링센터, 드림 공작소, 사회봉사센터, 도서관, 미디어센터 등의 기관이 대학 생활에 꼭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드림 공작소는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 4년간 이루고 싶은 목표를 포스트잇에 작성하고 게시판에 붙이면 푸드트럭 음식 교환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큰 인기를 끌었다.

학과 탐색 부에서는 사회복지학과, 금융보험학과, 물류무역학과, 부동산국토정보학과, 작업치료학과, 재활학과, 인공지능학과, 예술심리치료학과, 상담심리학과, 패션산업학과, 중등특수교육과, 한문교육과, 토목환경공학과가 학과별 체험과 홍보를 통해 신입생들에게 학과 생활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신입생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을 총괄한 행사 운영본부



▲ 학술동아리 '콘티' 부스 운영 사진, 대외협력홍보실 제공

는 스탬프 투어와 순간의 포착 이벤트를 준비했다. 스탬프 투어는 지정된 부스를 체험하고 스탬프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4개 이상 스탬프 획득 시 교내 카페 쿠폰과 응모권 1장, 5개 이상 획득 시 교내 카페 쿠폰과 응모권 1장에 더해 전주대학교 굿즈와 푸드트럭 교환권을 증정했다. 6개 이상 획득 시 교내 카페 쿠폰과 응모권 2장을 증정했다. 응모권을 모은 학생들은 추첨을 통해 레노버 씽크패드, LG 울트라 PC 노트북 등 푸짐한 상품을 받을 기회를 가졌다.

순간의 포착 이벤트는 오징어 게임 참가자, 운영 요원,

영희(오징어게임 캐릭터) 복장을 착용한 학생회 임원과 함께 특정 '결 포즈'로 사진을 촬영한 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CJ 기프트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번 신입생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은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에 있어 중요한 시작점이 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얻으며, 학교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 마경진 기자(alfpwnsgh12@jj.ac.kr)

미래 리더를 위한 첫걸음, 리더십 캠프 성황리에 마무리

신입생 소속감 강화와 리더십 함양을 위한 특별한 3일, 대학 생활의 첫발 내딛다

우리 대학은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2025학년도 신입생들의 원활한 대학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공동체 리더십 캠프'를 개최했다. 무주 태권도원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는 학생들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번 캠프는 전주대학교 인문콘텐츠대학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팀워크 활동, 자기 주도 학습법 강의, 도전 과제 수행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학생들은 공동체 속에서의 협력과 리더십을 배양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서는 진로 적성 탐색을 위한 STRONG 검사,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한 팀 프로젝트, 중국어중국어학과 안정훈 교수의 '허구와 상상력의 힘, 삼국지', AI 대학원 민정익 학과장의 '인공지능, 어디까지 아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참가한 신입생들은 "팀 게임 활동을 하며 동기와 단합할 수 있는 기회였다", "4년 뒤 나에게 편지를 보내는 타임캡슐 만들기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목표를 다시 새길 수 있었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캠프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박진배 총장은 "이번 캠프가 자유전공학부 신입생들에게 RC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대학 생활을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성장과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우리 대학은 매년 신입생들의 소속감 강화와 원활한 대학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동체 리더십 캠프 역시 신입생들의 적응을 도우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303
미디어센터 운영실 063) 220-2441
대학신문사 편집실 063) 220-2442

발행인 | 박진배
주간 | 최소담
편집장 | 전지은

편집: 대학신문사 편집부
인터넷신문: jj.ac.kr/jjnews
e-ISSN 3022-8212

"학우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

제52대 총학생회장 당선 인터뷰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인터뷰 사진

지난해 11월 19일, 2025학년도 우리 대학을 이끌 '결' 총학생회가 최종투표율 35.34%, 찬성률 94.40%로 당선되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52대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된 최의지 회장을 만나 당선 소감과 비전을 들어보았다.

Q.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에 앞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한결같은 마음, 다가올 물결 그리고 하나 된 결”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외식산업조리학과 19학번 재학 중인 2025학년도 전주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장 최의지입니다.

Q. 늦었지만 당선 축하합니다. 당선 소감 부탁드립니다.

A. 먼저, 전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투표에 참여해 주신 3,108분의 학우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총학생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학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전주대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모두가 더 나은 대학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Q. 학생회장으로서 올해 목표와 비전은 무엇인가요?

A. 최근 많은 대학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제 목표는 모든 학우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전주대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 사회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총학생회가 학과와 단과대를 아우르는 가교 역할을 하며 전주대학교의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이러한 바람을 이루며 2025학년도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Q. 총학생회장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2019년과 2023년, 저는 학생회의 일원이 아닌 한 명의 학우로서 여러 불편함을 경험했습니다. 2024년에는 중앙동아리연합회에서 활동하며 학생 사회와 학교 운영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학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본부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Q. 제시한 공약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현하실 계획인가요?

A. 모든 공약이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공약은 수강 신청 시스템 개편입니다. 수강 신청은 학우들의 학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현재 시스템상 여러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많은 학우가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학사지원실과 세 차례 논의를 진행했으며, 수강 신청이 마무리되는 대로 학우 여러분의 불편 사항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수강 신청 알람 시스템과 sub과목 설정 기능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활한 수강 신청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무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하겠습니다.

Q.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있나요?

A. 이전 학생회에서 진행했던 것들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온, 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개설하여 SNS와 네이버 폼 등을 통해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간 평가를 도입하여 학우들의 의견을 여과 없이 직접 수렴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우 여러분들이 즉각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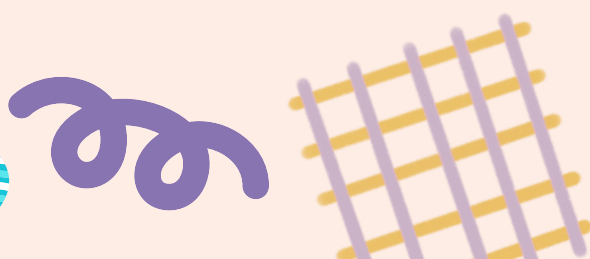
Q. 임기 동안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어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가장 큰 난관은 학생회 운영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총학생회 국장단을 학생회와 대외활동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구성했습니다. 협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학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전주대학교 학우 여러분, 먼저 저에게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학교는 학업적 성장을 넘어,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개인으로도 성장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우 여러분과 함께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나가고 싶습니다. 단순히 나열한 공약만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대학교 1만 학우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행동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동아리연합회 'NOW'와 함께하는 중앙동아리



2025학년도 우리 대학의 즐거움을 이끌어 갈 제40대 중앙동아리연합회 'NOW'와 소속 동아리들을 소개한다. 중앙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운영 지원과 관리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및 다양한 이벤트를 주관하며 동아리 문화 발전과 학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복지 물품 지원, 공용 시설 대여 등을 통해 동아리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우리 대학의 중앙동아리는 문화예술분과, 취미체육분과, 종교분과, 학술분과, 봉사분과로 분류되어 약 40여 개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문화예술분과에는 사진 동아리 '호룡', 그림 동아리 '파스텔', 연극 동아리 '벗단', 힙합 동아리 '맨인블랙', 디자인 동아리 'DIMU', 영화 감상 동아리 '스크린', 버스킹 동아리 '노래방'과 '은하수', 기타 동아리 '알함브라', 뜨개질 동아리 '몽실몽실', 성우 동아리 'Casting Voice', 뮤지컬 동아리 'MF', 만화책 동아리 '코믹스', 밴드 동아리 '파랑새', 다목적 음악 동아리 '쉽표', 댄스 동아리 'UCDC' 등이 있다.

취미체육분과에 소속된 동아리는 야구 동아리 'DUGOUT', 보드게임 동아리 'JJ보드게임즈', 볼링 동아리 '핀터치', 산악 동아리 '산악부', 배드민턴 동아리 'JUBC', 배구 동아리 '팬텀[PHANTOM]', 여행 동아리 '봇집들', 친목 동아리 'B.I.C', 버킷리스트 동아리 '기회주의자', JJ리그 축구 동아리 '볼케이노'와 '전주 상무 유나이티드', 축구부 프런트 동아리 '시애프레', 테니스 동아리 'JJ테니스', 운동 동아리 'Healthy', 유도 동아리 '전유회' 등이 있다.

종교분과에는 기독교 동아리 'DSM', 'ENM', 'CCC', 'E.S.F', 'JDM', '컴앤씨', 한국기독교학생회 'IVF', 가톨릭학생회 '루체무스' 등이 있다.

또한 **학술분과**에는 공모전 동아리 '콘티', 역사 동아리 '역사랑', 창업 동아리 'HYPE', 광고 마케팅 동아리 '이스트[IST]' 등이 소속되어 있으며, 봉사분과에는 굿네이버스 전북지구 대학생 자원봉사 동아리 '굿씨드'와 청소년 적십자 동아리 'RCY', 새마을협회와 함께 하는 동아리 '새온', 독거노인 봉사를 위한 '요리봉사동아리' 등이 있다.

제40대 중앙동아리 연합회 'NOW'는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의미 있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취임사에서 "학우들의 다시 오지 않을 대학 생활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들어가고, 동아리와의 연결고리를 단단히 묶어 풍성한 동아리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는 메인 공약으로 대표자 회의 개편, 학생회관 정기 점검 시스템 도입, E-SPOTV 'NOW', 'NOW'만의 농촌봉사활동 등 총 4가지 핵심 공약을 내세웠다.

대표자 회의 개편

분기마다 진행되는 대표자 회의 시 불편했던 점을 보완하고 실시간 회의 자료 업로드, 온라인 투표 방식 등을 활용하여 회의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학생회관 정기 점검 시스템 도입

매달 학생회관 내 시설과 편의시설의 상태를 점검하고 보완해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진다.

E-SPOTV 'NOW'

학업에 지친 학우들에게 온라인 게임 대회를 개최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통해 동아리 간 화합의 장을 만들어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NOW'만의 농촌봉사활동

중앙동아리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농촌봉사활동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친목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 학생들이 농사일 외에도 불편함 없이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NOW'만의 농촌봉사활동을 기획한다.

이 외에도 동아리 월간 신문 출간, 화장실 탈취제 비치, 아나바다 플리마켓, 학생회관 내 소통함 설치, 복지 물품 확대, 다양한 제휴업체 확대 등의 세부 공약을 약속했다.

중앙동아리연합회의 소식과 다양한 행사, 공약 이행 사항, 동아리 지원 정보는 인스타그램 계정(@jj40now)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새로 단장한 대학 시설을 소개합니다!

새 학기를 맞아 우리 대학이 한층 더 새로워졌다. 겨울 방학 동안 진행된 건물 보수와 신설 작업을 통해 개선된 주요 시설들을 소개한다.

신정문·구정문 시설 교체

우리 대학 입구는 천잠로와 서원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신정문과, 백마산길을 따라 보이는 구정문 총 두 곳이 있다. 이번 보수 작업을 통해 신정문에는 조경시설물을 설치해 미관을 개선했으며, 구정문의 구조물도 새롭게 정비하여 한층 깔끔한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인조잔디장 풋살장 신설

이번 방학 기간 인조잔디장 공간 일부에 풋살장 2곳이 신설되었다. 이용 방법은 평일에는 학생지원실(063-220-2819), 주말 및 공휴일에는 총무지원실(063-220-2425)에 문의하면 된다. 다만 학과 수업이나 축구부 훈련 일정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진리관 시설 및 학습 환경 개선

1층 로비에는 LED 전광판을 새롭게 설치해 각종 소식을 전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진리관 306호를 시너지 클래스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마지막으로 난방비 절감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진리관 전체 창호를 전면 교체했다.



믿음관 전면 리모델링

현재 기독교 강의 및 경배와찬양 학과의 실습실로 활용되는 믿음관은 내부 전체 리모델링을 마쳤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장실습지원센터 이전

기존 스타센터 컴퓨터센터 2층에 있던 현장실습지원센터가 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학생회관 2층 234호(한국어교육센터 방향)로 이전했다.



스타센터 개선 사항

컴퓨터 센터 2층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좌측 공간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을 만들었다. 한쪽에는 회의실이 있으며, 개인 공부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있다.

도서관 열람실 228호는 4월부터 JJ 선교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소그룹 채플 교제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컴퓨터 센터 2층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좌측 공간 사진, 대외협력홍보실 제공

학과맞춤형 공간 신설

한편, 특정 학과를 위해 신설된 공간도 있다. 대학 본관 4층에는 반려동물산업학과와 미래융합대학 소속 반려동물학과 재학생을 위한 전용 공간이 생겼다. 이곳에는 강의실, 실습실, 학생 휴게실과 학과 행정실이 마련되었다. 또한, 희망홀 뒤편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실습실을 조성, 이번 학기부터 반려동물학과 학생들이 사용하게 된다.

학군단 101호에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위한 계단식 대형 강의실이 만들어졌다. 이 강의실에서는 간호학과 주요 행사 및 1학년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타빌 2층 과거 학식 공간은 대형 조리실과 VIP 연회장으로 바꾸어 한식조리학과 학생들이 실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방학 기간 예술관, 평화관, 순영관, 스타센터의 냉·난방기 교체가 있었다.

학생들의 작은 의견도 더 나은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기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만약 시설 보수를 요청하고 싶다면 '인스타(<https://instar.jj.ac.kr/>) > 대학 생활 > 시설 관련 요청'에서 신청하거나 총학생회를 통해 건의하는 방법이 있다. 새롭게 정비된 교내 시설들이 학생들에게 편리하고 사랑받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

라오스에서의 한 달, 가르침과 배움의 여정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백승은

저는 겨울 방학 동안 라오스 교육 봉사에 참여한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24학번 백승은입니다. 한 달 동안 타국에서 생활하며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팀원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이 저에게 값진 기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했고, 봉사를 마친 지금 그 결정이 옳았음을 느낍니다.

이번 봉사는 라오스 수파누봉 대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주된 목표는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수업을 기획하고 실행하였으며, 학생들의 언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예비 교사로서 저 역시 성장하는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은 동화 수업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동화를 선택하고, 해당 내용을 분석한 후 역할을 정해 연극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했습니다. 인물 퀴즈를 통해 이야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었으며, 빈칸 채우기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대본 연습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맡은 캐릭터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극 활동이 한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업을 계획해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준비했던 내용이 예상보다 어려워 수업을 즉석에서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수업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수업 운영 능력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태도와 교육 철학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수법을 시도하며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게임 형식의 학습 활동을 추가하여 한국어 문법과 어휘를 보다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했고, 학생들이 스스로 발표하는 시간을 늘려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자신감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를 통해 학습 동기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라오스로 떠나기 전부터 저는 수파누봉 대학교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제공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다소 어색해하고 수업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눈빛이 변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형성되었고, 학생들의 학습 태도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며, 교육자로서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는 일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하나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배경과 전공을 가진 팀원들과의 협업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교육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하면서 점차 유기적인 팀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라오스 교육 봉사는 단순한 봉사 활동이 아니라, 저 자신이 한층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이 별개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이라는 점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과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교육자로서의 태도와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인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으며, 무엇보다 학생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된 라오스 교육 봉사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관계가 점점 끈끈한 유대감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우리는 함께 빛나는 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는 교육자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과 태도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이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여 의미있는 교육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채플 안내

우리 전주대학교에서는 '기독교 정신 구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재학생이 채플을 4회(편입생 2회) 이수해야 하는 교과 과정이 있으며, 이를 위해 네가지 채플을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다. 각 채플에서는 테마와 특성을 가지고 학생들이 채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 문화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각 채플은 다음과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성품채플, 소그룹채플

성품채플, 소그룹채플은 한 학기에 7개의 성품, 1년에 총 14개의 성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건학이념을 구현한다.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통하여 새로운 인격과 기독교 정신을 함양하고, 학생들이 내면세계의 질서를 구축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 신앙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채플

문화채플은 문화를 도구로, 매주 주제를 정하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그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제시하는 비신자 전용 채플이다. 수퍼스타홀에서 진행되는 문화 채플은 학생들과 소통하며 토크콘서트 형식의 결합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학생들 한명 한명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운데에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과 복음이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늘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채플이다.

▶부흥채플

부흥채플은 신자 전용 채플로 학생들의 신앙생활에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대 사회 속 젊은 기독교 청년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흥채플은 전통적인 예배 방식을 넘어서, 찬양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 교류와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며 신앙에 대해 깊이 있는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신앙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비록 한 학기이지만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같이 만들어가는 채플이다.

▶세계관채플

세계관 채플은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쪽으로 치우친 세계관에서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배우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돕는다. 정해진 답을 찾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생각의 변화를 유도한다. 학생들은 세계관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바른 관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경험한다.

선교지원실 오예찬(ssd5205@jj.ac.kr)

예배안내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교직원, 혹은 학생 중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한병수 목사(대학교회 205호)

<절망의 반전>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장·선교봉사처장)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담아 잉태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녀는 엘가나의 후처였을 브닌나의 조롱과 괴롭힘을 당합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이 한나의 인생을 슬보다 더 취하게 만듭니다. 오해한 제사장의 “포도주를 끊으라”는 충고까지 듣습니다. 몸과 마음과 인생이 가난해진 한나는 기도의 무릎을 꿇고 축축한 신음을 수복히 게웁니다. 그녀의 겸손과 인내의 임계점에 이르자 하나님은 불행의 원흉이던 그녀의 태를 조용히 여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는 최후의 사사로서 왕정의 역사를 출산한 분입니다.

저는 한나의 신앙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불행에 반전을 가져온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바칩니다. (이 대목이 목회자의 종신직을 두둔하는 근거로 오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밀천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그런데 최고의 것을 바친 한나에게 하나님은 더 최고인 자신을 주십니다. 한나가 아들을 드리며 부른 노래를 보십시오. 신학자가 수백권의 학술서를 읽어도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 지식에 감미로운 곡조까지 붙어 있습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은 가장 큰 불행이 준비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행은 인생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나고 좋아하던 일이 중단되어 절망으로 투신하고 싶은 때에 “은혜”라는 의미의 한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반전의 태는 인생이 밑바닥을 칠 때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문

새로운 한 학기를 기대하며

전주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2025년 새로운 한 학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전주대학교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전주대학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독교 명문사학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주대학교가 하나님의 복음의 터전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대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전주대학교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입시 상황 가운데서 2025학년도 입시에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2025학번 신입생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 전주대학교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들의 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전주대학교에 60개 학과를 허락하시고 각각의 단과대학에 서로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재학생들을 세워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 허락하신 학생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있

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세우신 모든 교수들과 교직원들에게 지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시고 학생들을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2025년 새로 준비하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고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전주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항상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전주대학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장순 교수
(인문콘텐츠대학
신학과경배찬양학과)

기자칼럼

자극 중독 세대? 요즘 대세는 '저속노화'



김주은 기자
(202315018@jj.ac.kr)

지난 1월 12일,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의 '엑스'(X, 구 트위터) 계정에 세븐일레븐과 협업한 저속노화 간편식을 소개하는 글이 게시됐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저속노화 식단'이 간편식과 가공식품 분야까지 진출한 것이다.

최근 새로운 트렌드가 된 '저속노화'란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 신체 노화를 늦추고 천천히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을 말한다. 저속노화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하며 SNS에서 열풍을 일으킨 정 교수는 저속노화 습관으로 충분한 수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사, 스트레스 관리를 제시했다.

저속노화의 핵심은 식단 관리에 있다. 단순 당과 정제 탄수화물, 초가공 식품, 붉은 육류 등을 자제하고, 혈당지수가 낮은 잡곡밥과 채소, 콩 등을 섭취하며 식사 순서를 조절하는 것이 주요 원칙이다.

현재 정 교수가 운영하는 저속노화 식단 커뮤니티에는 약 4.6만 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 저속노화 식사법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식단을 인증하고, 요리법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창구다. 소위 가속노화 음식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쉼터 역할도 한다.

마라탕, 탕후루 등 맵고 달고 짠 음식이 유행하고, 자극적인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이러한 저속노화 식단의 유행은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 그러나 바쁜 업무에 시달리는 현대인이나 1인 가구, 특히 자취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저속노화' 식단이 좋은 것은 알겠으나, 신선한 채소나 과일 등은 보관 기간이 짧아 1인 가구가 구매하기에 부담스럽고, 직접 정성껏 요리할 시간적 여유 또한 없다는 것이다.

"건강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가처분 시간이 부족한 분들도 건강할 권리가 있지요. 앞으로도 저속노화를 가까이 접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 교수가 저속노화 간편식 출시 소식과 함께 엑스에 작성한 글이다.

지금까지 편의점 간편식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간단히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한 자극적인 음식이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합리적

인 가격으로 편의점에서 쉽게 저속노화 식단을 접할 수 있게 한 이번 협업은 간편식의 단점은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했다.

정 교수는 제품 출시를 위해 6개월간 서른 번이 넘는 수정을 거쳤다고 한다. 건강식이 맛없다는 편견을 깨고 사람들이 부담 없이 저속노화 식단을 접하게 하는 동시에,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시중 편의점 도시락의 나트륨 함량이 1,000mg을 초과하는 반면, 이번 협업을 통해 나온 도시락은 한 끼 평균 권장량인 700mg이다. 타 도시락과 비교해 50%나 낮은 셈이다. 또한, 영양성분이 풍부한 렌틸콩, 귀리, 현미 등의 비율을 조정하여 잡곡의 영양을 극대화하면서도 식감과 맛을 살렸다. 이렇게 출시된 제품들은 현재 품질 대란을 일으키며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자극 중독'에 빠져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최근 몇 개월 숏폼 영상과 밈이 범람하는 SNS에서 '저속노화 식단'이 유행처럼 번지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간단히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한 자극적인 음식이라는 인식에 머물던 편의점에서 '저속노화 간편식'이 출시된 것은 의미가 크다. 고자극과 도파민 과부하에서 벗어나, 조금 심심하더라도 자신을 돌보는 저속노화에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 짧게 유행하고 사라지는 수많은 트렌드와 달리, '저속노화'가 하나의 새로운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꽃샘추위 대비 건강수칙!>



교수칼럼

장애대학생을 위한 포용적 교육 환경 조성



김희주 교수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우리나라는 1995년 '장애인특별전형' 시행 및 확대에 따라 고등교육 기관의 장애학생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6년 장애대학생 규모는 4,045명이었으나 2020년 기준 9,717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21년 장애인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대학과 전문대학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73개교 419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131개교 891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e-나라지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자 6,528명 중 1,433명(21.95%)이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진학하였으며, 이는 2021년 18.79%, 2022년 19.96%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한 수치로 2023년에는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비중이 높은 편이나, 최근에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 및 기타 장애유형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2012년 8%였던 발달장애 대학생 비율은 2021년 14%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장애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등교육 기관들은 장애 학생들의 학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 서비스도 확충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적 개선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 대학생의 교육 부적응 문제와 교육지원 서비스의 불충분 문제는 존재하며, 이러한 교육 소외는 교육 성과의 차이로 드러나 중도탈락 비율이 높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최근 국내 원격교육대학의 한 교수의 장애인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또한, 장애대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팀 프로젝트나 오리엔테이션(OT) 등의 공동 활동에서 은근한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한 장애대학생이 이러한 차별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인터뷰 영상이 SNS에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추는 데 있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시사한다. 장애대학생은 단순한 편견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인해 대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를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습자로 인정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등교육 기관에서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언행과 포용적인 교육 태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동료와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모르는 문화적·제도적 미비점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포용적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다. 장애대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 환경에서 동등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기자칼럼

꿈꿔본 적 있는가, 더 아름답고 완벽한 나



양예은 기자
(kikiyye@jj.ac.kr)

미디어는 시대를 반영한다. 사람들이 어떤 영화에 열광하는지는 곧 현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 어렵게 살던 80년대에는 일상적인 코미디 영화가 사랑을 받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20세기 말에는 미래를 그리는 SF 영화가 화제의 중심에 있었다.

그렇다면 2025년의 화두가 되는 영화는 무엇일까? 여기, 유명한 영화사도, 감독도 아니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영화가 있다. 바로 '더 나은 모습의 당신을 꿈꿔본 적 있나요?'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영화 '서브스틴스'다.

'서브스틴스'는 한때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고 명예의 거리까지 입성한 대스타였지만, 지금은 TV 에어로빅 쇼 진행자로 전락한 엘리자베스(데미 무어)의 이야기다. 50세 생일, 어리지도 섹시하지도 않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엘리자베스는 돌아가던 길에 '서브스틴스'라는 신비한 약물을 알게 된다. 한 번의 주사로 젊고 아름답고 완벽한 자신, 수(마가렛 켈리)가 탄생하는데... 단 한 가지 규칙,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킬 것. 각각 7일간의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한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기억하라, 당신은 하나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임에도 입소문을 타고 선전 중인 서브스틴스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는 여우주연상,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분장상을 수상하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영화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이유는 현재 가장 민감한 문제, '외모'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주인공인 엘리자베스는 더 젊고 아름다워지기 위해 약물을 주사한다. 우리는 어떠한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화장과 성형, 다이어트를 불사한다. 하지만 아름다움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점만 더 선명하게 보이고, 외모 강박에 사로잡혀 결국 현재의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굴레에 갇힌다. 특히 외모에 민감한 10대, 20대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통계에 따르면 10대 여성의 77%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며, 섭식장애를 앓는 환자도 2020년에 비해 2025년 현재 약 40% 증가했다고 한다.

사회적 기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랑받고 싶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모든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나 더 나은 나, 더 아름다운 나를 꿈꾸느라 현재의 나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 파괴적 행위다. 내 외모가 아름답고 잘나야만 타인에게 인정과 애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고는 자기혐오로 이어진다. 이런 생각을 멈출 수 없다면 미디어를 멀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죄책감을 강요하는 다이어트 광고와 화려한 연예인의

삶에서 잠시 눈을 돌려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우리 대학에는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카운슬링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자존감, 외모 강박, 기타 문제를 겪고 있다면 나 자신을 보살피는 것부터 시작하자.

영화 내내 엘리자베스는 에어로빅 쇼를 끝마친 후 카메라를 보며 이렇게 말한다. "자신을 보살피주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자베스는 단 한 순간도 그러지 못했지만, 영화를 본 관객에게는 부디 자신을 보살피라고 말하는 듯하다.

Jeonju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Signs MOU with Toast Animation

Jeonju University's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announced that it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Toast Animation on the 10th to collaborate on the development of smart dolls and content creation.

The signing ceremony, held at Jeonju University's main building, was attended by Toast Animation CEO Kim Ae-rim and Director Jang In-bok, along with Jeonju University's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Director Kim Sang-jin, Professor Ko Kyung-sun from the Department of Art Therapy, and Professor Kim Young-soo from the Depar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Under this agreement, the two institutions will collaborate on various initiatives, including:

- Character and animation content development
-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therapy content and its effectiveness
- Providing joint education and practical training opportunities

Toast Animation is the only animation-specialized company in Jeonbuk, comprising storytellers and design experts who focus on character development, 3D animation, and branding. Beyond simply creating content, the company aims to deliver meaningful and heartwarming values, aligning with Jeonju University's goals of developing psychological therapy content and smart dolls. This partnership is expected to foster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entities.

Kim Sang-jin, Director of Jeonju University's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stated, "Through this agreement, we expect to advance the development and research of psychological therapy content while providing students with valuable education and hands-on training opportunities. This collaboration will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growth of both institutions."

In response, Toast Animation CEO Kim Ae-rim commented, "We will continue to collaborate with mutual respect, ensuring that both parties grow together through various programs."

Meanwhile, in line with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Enhancement (RISE) initiative, Jeonju University aims to play a key role in regional development by fostering collaborations with various local stakeholders and nurturing talent tailored to the region's needs

translated by reporter Jeon Ji-eun(uptoillie20@jj.ac.kr)

Jeonju University Museum Achieves Major Success with Selection for Three Government-Funded Projects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announced that its museum has been selected for three government-funded project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selected projects include:

Two initiatives under the 2025 Private and Private University Museum Professional Manpower Support Program are aimed at enhancing the quality and expertise of museums in the fields of curatorship and education.

The 2025 Private and Private University Museum Preliminary Curator Support Program focuses on establishing a training system for aspiring curators.

The museum has been selected for the professional manpower support program for ten consecutive years since its launch in 2016. Additionally, the preliminary curator support program has been awarded annually since 2020.

Notably, in 2024, the museum was recognized as an Outstanding Institution for Professional Manpower and an Outstanding Institution for Preliminary Curators and Personnel based on multiple evaluation criteria, including museum performance, personnel working conditions, compliance with museum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adherence to operational guidelines.

Park Hyun-soo, Head of the Museum's Research Division, stated, "As the region continues to face a declining population, we aim to utilize professional manpower to provide high-quality exhibitions and educational programs to both local residents and students. Our goal is to foster cultural vitality and expand opportunities for cultural and artistic engagement within the community."

translated by reporter Jeon Ji-eun(uptoillie20@jj.ac.kr)

Jeonju University Selected for Phase 2 of the Jeonbuk Regional Energy Cluster Talent Development Project & Hosts 4th Relay Seminar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announced that its Jeonbuk Regional Energy Cluster Talent Development Project (Project Lead: Professor Kim Eun-soo,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has been selected for Phase 2 continuation. Following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Phase 1, which lasted three years, the project will continue for an additional two years, further strengthening industry-academic collaboration to address technical challenges, create high-quality regional job opportunities, and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Jeonbuk's energy sector.

To mark the Phase 2 selection, the 4th Relay Seminar of 2025 was held on March 7 in Engineering Building 1, Room 329. The seminar featured Park Chul-woo, Head of the Development Department at New Power Plasma Co. Ltd., as the guest lecturer, addressing graduate students in the field of power electronics.

Park's seminar, titled "Principles of Plasma Generation for Semiconductor Processes and the Application of Power Electronics," provided foundational knowledge on plasma technology and its industrial applications. He approached the topic from a business perspective, discussing key industry needs such as technology development, equipment, and processing. Additionally, he shared insights into New Power Plasma's R&D center, core production technologies, semiconductor processes, and Remote Plasma Source (RPS) system applications, giving students valuable industry-based knowledge and a deeper understanding of real-world research and development environments.

Meanwhile, Jeonju University's Power Electronics Research Lab (led by Professor Kim Eun-soo) will collaborate with New Power Plasma, which operates a factory in Iksan, to support the Jeonbuk Regional Energy Cluster Talent Development Project and the upcoming Honam Energy Sharing University (ETU) Initiative. This partnership aims to facilitate technological exchange and workforce development.

Through these joint efforts, Jeonju University and New Power Plasma plan to work together on various power electronics projects. The university will enhance graduate students' expertise and improve their employment prospects, while the company will address technical challenges and workforce shortages. This collaboration is expected to drive innovation, create high-quality jobs, and boost the local energy industry, ultimately contributing to a more dynamic regional economy.

translated by reporter Jeon Ji-eun(uptoillie20@jj.ac.kr)

Jeonju University's College of Culture and Tourism Opens 'Aviation Service Training Room' to Enhance Practical Skills in the Aviation Industry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announced that the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held an opening ceremony for its new Aviation Service Training Room on February 28. This facility was established to enhance students' practical skills for careers in the aviation industry.

The newly designed training room is modeled after the Boeing B-747, replicating a real-world aviation environment. It features aircraft entry doors, an Overwing Exit door, a mock-up cabin, oxygen masks, a public address system, and emergency equipment, providing students with hands-on experience in a realistic training setting.

Through this initiative, Jeonju University aims to offer an immersive learning experience for students pursuing careers in the aviation industry, particularly as cabin crew members. The facility will help them systematically develop the practical skills required by the industry.

Professor Ryu In-pyung, Head of the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stated, "It is truly meaningful that our students can now receive practical education tailored to the aviation industry's needs. Moving forward, we will expand collaborations with various airlines to train aviation service professionals with specialized expertise."

In addition,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university-community collaboration, Jeonju University plans to open the Aviation Service Training Room to the local community. The facility will host aviation safety education programs, in-flight service experience sessions, and emergency response workshops. By doing so, the university aims to provide local residents with valuable aviation-related knowledge and hands-on learning opportunities while reinforcing its role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committed to social responsibility.

Grouptranslated by reporter Jeon Ji-eun(uptoillie20@jj.ac.kr)

全州大学隆重举行2024学年度学位授予仪式 —2026名毕业生开启人生新的篇章



2月19日, 全州大学J艺术厅内洋溢着喜悦与祝福, 2024学年度学位授予仪式在此隆重举行。这是全州大学的第58届学位授予仪式。新东亚学院院长车钟顺(音译)、国会议员李成允(音译)、总校友会会长林正烨(音译)、全州大学发展牧师协会会长徐和平(音译)以及教务委员、毕业生及家长代表共同出席了这一重要时刻, 见证毕业生们开启人生新篇章。

仪式上, 1885名本科生、100名硕士生和41名博士生, 共计2026名学子被授予学位。校长朴珍培在致辞中激励毕业生们说: “毕业不是终点, 而是追逐更大梦想的新起点。希望你们能在全州大学所学的知识与经验为基石, 在世界舞台上绽放光彩, 成就精彩人生。”

全州大学杰出校友、国民年金研究院院长韩正林(音译)以自身经历为例, 分享了毕业之初曾感到的迷茫与挑战。他借用“磨杵成针”的典故, 真挚地鼓励学弟学妹们: “只要坚持不懈, 全力以赴, 梦想终将实现。”

在颁奖环节, 博士生张成求(音译, 房地产学系)、李基善(音译, 碳融合工学系)和本科生赵哲基(音译, 碳纳米新材料工学系)荣获理事长奖。此外, 学校还为学业优异、表现突出的学生颁发了校长奖、功劳奖、总校友会会长奖和全州大学发展牧师协会会长奖, 以兹表彰。

全州大学建校以来, 已培养了83925名本科生、7409名硕士生、1119名博士生和43名名誉博士生, 共计92496名毕业生。如今, 又一批2026名“超级明星”即将踏上新的征程, 他们必将接过前辈的接力棒, 在社会各界发光发热。在热烈的掌声中, 学位授予仪式圆满落幕。全州大学衷心祝愿毕业生们以所学所悟为翼, 在更广阔的天地间翱翔, 创造属于自己的辉煌。

全州大学为86名外国留学生举行特别学位授予仪式



2月19日, 全州大学国际交流院在国际教育馆隆重举行了外国留学生学位授予仪式, 共有86名外国留学生获得学位。此次活动不仅是对学生们学术成就的认可, 也是与当地社区共同庆祝留学生新起点的特别聚会。

在仪式上, 65名学士、10名硕士和11名博士毕业生获得了学位。特别值得一提的是, 经营学系的黎文东(音译)等6名毕业生荣获“全球优秀奖”, 他们的卓越表现得到了高度评价。

由于许多毕业生的家人无法亲临现场, 当地市民、教职员、教会及志愿者团体代表出席了仪式, 为毕业生们送上了温暖的祝福。活动以毕业生代表发言、为优秀毕业生颁奖、嘉宾致辞和祝贺视频播放等环节相继进行。最后, 教职员们合唱祝贺歌曲, 营造了温馨感人的氛围, 为毕业生们的未来送上美好祝愿。

全州大学国际交流院院长沈永国在仪式上表示: “我们很高兴看到外国留学生在韩国顺利完成学业, 并准备迎接新的挑战。我们将继续支持外国留学生在韩国的学习和生活, 帮助他们融入社会, 实现个人发展。”

全州大学一直致力于培养国际人才, 提供多样化的教育课程, 包括韩语和英语课程, 并为学生提供从入学到就业的一站式服务。学校还致力于打造一个对外国留学生友好的校园环境, 不断改善国际化基础设施。

此次学位授予仪式再次显明了全州大学培养国际人才的决心, 并为外国留学生的未来送上了最真挚的祝福。

2025학년도 1학기 미디어센터 사령

■대학신문사 임명

[편집장]

전지은(한국어문학 23)

[취재부]

부 장 | 양예은(한국어문학 20)

정기자 | 오유진(행정 21)

마경진(한국어문학 20)

김주은(한국어문학 23)

수습기자 | 김소리(영화방송학과 23)

[편집부]

부 장 | 김예은(시각디자인 22)

정기자 | 김예진(시각디자인 23)

오수현(영화방송 23)

수습기자 | 이예원(한국어문학 23)

김보라(영화방송 23)

위 사람을 3월 27일부로 상기직에 임명함.

■교육방송국 임명

[국장/부국장]

국 장 | 최윤서(방사선 23)

부국장 | 김지훈(한국어문학 20)

[운영부]

부 장 | 이예진(영화방송 24)

[기획부]

부 장 | 이채원(국어교육 22)

일반국원 | 김수현(행정 24)

김가은(경영 23)

박은진(패션산업 21)

유보영(관광경영 24)

신입국원 | 김민정(중등특수교육 25)

[편집부]

부 장 | 박민서(작업치료 24)

일반국원 | 장주원(영화방송 23)

문민경(시각디자인 22)

신입국원 | 김민혁(경영 25)

한민서(영화방송 21)

한승우(상담심리 23)

[기술부]

부 장 | 이동현(정보통신공학 22)

신입국원 | 강예인(영화방송 25)

강유진(산업공학 22)

안민서(금융보험 25)

윤 비(영화방송 25)

최진주(공연방송연기 22)

[아나운서부]

부 장 | 안수림(한국어문학 24)

일반국원 | 성보은(보건관리 24)

신입국원 | 박지윤(상담심리 24)

이수민(공연방송연기 22)

위 사람을 3월 27일부로 상기직에 임명함.

신문사 신입 기자

<활동 내용>

- [취재 기자: 교내뉴스 및 생활, 문화 기사 취재 및 작성 등]
- [편집 기자: 일러스트 제작, 사진보정, PDF 디자인 등]

<활동 혜택>

- ✓ 정기자 선발 시 매월 교내 미디어 장학금 지급
- ✓ 신문 발간 시 신문 기사 작성에 대한 원고료 지급
- ✓ 학기별 CP 20 지급
- ✓ 미디어 프로그램 강의 제공 (포토샵, 인디자인 등)



<신청 기한>

✓ 상시 모집



전주대학교 재학생 전체 대상

2025학년도 SUPER 핵심역량진단



진단 기간 : 2025. 3. 19.(수)~6. 20.(금)

1 SUPER 핵심역량 소개

<p>Spiritual Christianity</p> <p>영성인성</p> <p>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내면화하여 섬김과 봉사의 삶을 실천하는 능력</p>	<p>Universal Communication</p> <p>의사소통</p> <p>현상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p>	<p>Proactive Challenge</p> <p>자기개발</p> <p>자기주도적으로 학습 및 훈련하고 적응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는 능력</p>	<p>Exploratory Creativity</p> <p>창의융합</p> <p>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생산 및 구현하는 능력</p>	<p>Relational Collaboration</p> <p>+형 협력</p> <p>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수직·수평적 협력으로 성과를 도출하는 능력</p>
---	--	--	---	--

2 SUPER 핵심역량 진단 방법

* onSTAR 마이페이지 에서 매 학년도 진단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차트를 제공합니다.



PC

onSTAR 접속 > 로그인 > 핵심역량 소개 > 핵심역량 진단 페이지



모바일

전주대학교 APP > 전체 메뉴 > onSTAR > 핵심역량 > 핵심역량 진단하기

문의전화 | 학생성공센터(063-220-2836)

SUPER 핵심역량 진단은 자기이해 및 진로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부족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활용하기 위해 실시합니다.